골프와 믿음의 공통적인 핵심

(에스라 6:1~22)

6.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7.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2.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골프와 믿음의 공통적인 핵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골프와 믿음의 공통적인 핵심'

골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골프에 연관된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샷은 공을 공중으로 멀리 쳐내는 것이고, 티샷은 핀을 땅에 꽂고 그 위에 공을 올린 후에 가장 멀리 쳐내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퍼트, 칩샷, 투온, 쓰리온, 오버파, 언더파, 이븐파, 홀인원,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보기, 더블보기, 트리플보기 등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이 모든 용어들이 단 하나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리 없애기입니다.

골프는 18홀로 되어 있는데 어느 홀이든지 골퍼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깃발이 꽂혀있는 홀과의 거리감입니다. 특히 처음 티샷을 할 때에 거리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골퍼는 움직이게

됩니다. 골프를 하는 동안의 모든 생각들은 오직 거리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골퍼의 근본적인 자질은 예민한 거리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골프채로 어느 정도의 강약으로 공을 치면 가장 효과적으로 거리를 줄일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거리감이 믿음에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지를 알고 거리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프나 믿음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삶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비전이나 목표를 세우기를 좋아하지만 결국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이 삶에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믿음도 이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에 의해 생기는 역동성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것이 믿음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근원적으로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앞장에서 예루살렘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재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언이 곧 하나님과 내 마음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성전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또 다시 방해가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막무가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페르시아 총독 닷드내가 성전건축 현장을 돌아봄으로서 시작됩니다. 성전건축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현재 왕인 다리오 왕에게 진위를 묻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오늘 그 답변이 도착하게 됩니다.
왕의 문서를 보관하는 서고에서 정말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귀환시켜 성전건축을 시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는 이 고레스 왕 칙령의 내용이 다시 언급되고, 읽은 부분에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해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성전건축에 아낌없는 후원과 원조를 약속하는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원에 힘입어서 성전은 4년 만에 재건되고 봉헌식을 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방 왕들을 통해 성전건축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왜 그렇게 열심을 보였는가를 핵심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후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열심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태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율법이나 아브라함과 모세나 요셉에 대해 배운 적도 없었는데도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졌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성전건축에 열심을 내게 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열심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목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의 마음 사이의 거리를 예민하게 느끼기를 바라시고 또한 그 거리를 줄이며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골프 코스에는 18개의 홀이 있는데 그린 위의 홀컵에 공을 집어넣어야 성공적으로 코스를 끝낼 수 있습니다. 골퍼는 처음 티샷을 할 때에 깃대가 꽂혀있는 홀을 향해 거리감을 느끼며 골프채를 휘두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대가 꽂혀있는 홀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접근하여 그 안으로 쏙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으로 하나님께서 쏙 들어오실 수 있도록 거리를 좁혀야만 합니다.

이렇듯 당신을 우리에게 목표로 세우시는 열심이 성전건축이라는 형태로서 표현된 것인데, 성전을 생활화할 때에만 이 거리를 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표로 세우심에 있어서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다분히 억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성전건축을 후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것의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을 예로 든다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사나 부하직원도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과나 승진이나 월급을 목표로 하여 달려갑니다. 이때에 믿음을 가진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극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동료들과 다르게 당신을 목표로 삼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이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찾아오십니다. 직장이 아닌 가정에 있을 때에도 당신을 목표로 삼기를 바라십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목표는 가족들이 화목하여 가화만사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밖에 나가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하여 웃고 월급이 올랐다고 웃을 때에 우리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으로 인해 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승진을 향해 달려가기도 바쁜데 당신을 목표로 하여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골퍼가 티샷을 위해서 거리감을 느끼듯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승진과 월급에 거리감을 느끼며 그것을 좁히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민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듯한 물에 손을 담그면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밀착하면 마음의 온도가

변화합니다. 회사에서 하나님과 밀착한다면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일과는 상관없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로 기뻐하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로 인해 기뻐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표로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오셔서 각자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눈앞에 아내를 두고도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힘으로서 생기는 기쁨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곳에 침투하셔서 당신을 목표로 삼기를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밭에 나가면 밭 앞에 있어야 하고 가축들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내 앞에 있을 때에나 가축들을 돌볼 때에도 당신을 목표로 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직장에 있을 때라도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서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성전을 세우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면 승진이나 월급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제공해주시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장님으로 하여금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밀려나면 되는 것입니다. 밀려나는 순간에도 우리의 목표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쫓겨나게 하셨지만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활약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을 목표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골프선수처럼 거리감을 없애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건축에 대해 열심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치며 한 코스를 다 돌기 위해서는 18홀을 돌아야 하는데 각각의 홀마다 난이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나간다면 그 코스만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라는 홀에 내 마음을 넣을 것이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코스에서 타수를 줄일수록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쏙 집어넣기 위해서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는 자꾸만 승진이 생각나고 월급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장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소원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소원하는 것은 곧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기쁘고 만족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담긴 소원이 내 마음에 생기는데 그 소원의 내용이 이 세상 것들을 이루는 것인 한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마다 성전의 의미가 완성된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해집니다. 직장에서 내 마음이 승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함을 깨닫고 승진이 들어온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월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올라야 아이들 과외도 시키고, 집사람 옷도 한 벌 사줄 수 있으니 월급이 오르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원을 가지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월급이 올랐다고 기뻐할 수는 없다고 여길 때에 또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생길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죽이고 밭에 소출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해서 좁혀가는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고 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어지게 하는 많은 이 세상의 소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 예민한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이 있어야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회사에서도 하나님으로 기어코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퇴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기어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밖의 일을 위해서 가정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골프에서 공을 컵홀 안에 집어넣는 것과 닮은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골인 시켜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때에도,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이 식사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탁월한 프로 골퍼처럼 점점 하나님께 도달하는 타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대단히 많이 알고 유식해서 사도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서 목표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되기까지 타수를 줄여나가면서 빠르게 하나님께 도달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목표지향적인 거리감이 바로 골프와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거리감을 십자가 생활화로 줄임으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향해 도달하는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목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표이신 하나님께 도달 할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복음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이 목표를 계속해서 완성하며 살아가는 프로 골퍼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